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증설 완료

총 생산능력 1200만개로 확장 ... 글로벌 생산량 1억개 달성 탄력

한국타이어는 헝가리 공장의 증설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11월22일 발표했다.

2007년 6월부터 승용차용 고성능 타이어와 경트럭용 타이어를 연간 500만개씩 생산해온 헝가리 공장은 증설로 총 1200만개로 확대됐다.



한국타이어는 유럽시장에서 교체형 타이어 수요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신차용 타이어 수요가 급증하자 2009년부터 헝가리 공장의 5만8000㎡ 부지에 2억3000만유로를 투입해 생산시설을 확충했다.

한국타이어는 증설에 따라 헝가리 공장이 프리미엄급 초고성능 타이어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화 대표는 “증설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완료돼 글로벌 생산량 1억개 달성에 탄

력이 붙게 됐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친환경 설비를 활용해 유럽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2>